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역일자리 선도 모델 부상

박 청장, 국회토론회서 사례 발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관심 모아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이정표 기대”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차기 정부의 지역 일자리정책을 선도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 일자리 실현을 목표로 광산구가 최초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회,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는 차기 정부에서 고민할 시사점이 큰 선도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민선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는 시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대화로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할 일자리 모형을 만들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정책이다.

전담 부서 신설, 자문단 운영, 연구용역 등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부터 시민이 직접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광산구 사회적 대화는 샅터의 시민, 일터 노동자가 주체가 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풀뿌리 방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에는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시민의 1436개 질문과 20개 핵심 질문을 엮어 최초의 녹서를 발간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러한 광산구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지금의 시기적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게 됐다”며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 노동정책이 없었고, 정치권도 지역 정책이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광산구가 때마침 좋은 정책 모델을 제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가 추진하던 광구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키워 ‘지역 일자리정책’이란 약칭을 해소했듯 6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게도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란 게 정 교수의 전망이

다.

양이 아닌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광산구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문주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광산구가 고용 불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려 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며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서도 불평등을 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일자리 질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개무량하다”며 “기초지자체부터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를 찾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이 아닌 지역을 잘 아는 시민이 직접 일자리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광산형 사회적 대화와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의 이정표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의 환경·노동분야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박병규 청장으로부터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받고, 간담회를 나눴다.

이 의원은 “(광산구 사회적 대화와 녹서 제작이) 전국적으로 첫 정책 실험, 첫 선례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지자체로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확장·발전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례 발표를 한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 경험과 사례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온 국민의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녹서를 토대로 답변서인 ‘백서’, 실행계획서인 ‘청서’를 만들기 위한 후속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상철 기자

아동권리 포스터 공모전
동구, 우수작 13점 선정



광주 동구는 지난 15일 ‘내가 살고 싶은 안전한 우리 마을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동권리 홍보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에서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광주 지역 내 13세 미만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됐다.

참가 부문은 미취학아동,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으로 나뉘었으며, 총 19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구성 및 표현력,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고, 최종 수상작 13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우리 마을엔 영웅들이 있어요’, 우수상에는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를 멈춰요’, ‘어린이 현장! 어린이가 존중받는 우리 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 권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동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 운영
남구, 22일부터 11월25일까지

광주 남구가 인문학 중흥과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이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오는 22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8차례 진행되며 인문도시 구현과 인문학 대중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 8명이 강연을 진행한다.

남구 관계자는 “회차별 참가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께서는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남구는 오는 22일부터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청 제공

가정방문 반려견 훈련사 운영
광산구, 1:1 맞춤형 방문 교육

광주 광산구는 ‘찾아가는 반려견 훈련사’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견 훈련사는 반려견 행동 교정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 훈련사가 방문해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웃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광산구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로 유선 상담과 함께 가구당 1~2회씩 총 100회의 행동 교정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짖음, 배변 등 문제 행동 교정 △기분 사회화 훈련 △보호자 펫티켓 교육 등 문제 행동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발표는 교육 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북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4개 사업 총 2억2500만원 투입
강소기업 도약 위한 발판 역할

광주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해외 진출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기술이전 지원 등 4개의 분야별 지원사업에 총 2억2500만원을 투입하고 사업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바우처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2000만 불 이하인 기업 12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홍보물 제작, 통·번역,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4개의 사업을 제공하며 기업별로 최대 2개 사업 6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및 SNS 이용 빈도 증가 추세에 발맞춰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수한 제품을 보유 중인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체험단이 약 2주의 기간 동안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뒤 구체적인 후기를 SNS에 게시해 잠재 고객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CI 및 BI 개발을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를 1년 이상 북구에 두고 영업활동 중인 기업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디자인 전문 기업과 사업 참여기업을 1대1로 매칭해 전문가 컨설팅, 중간 보고회, 상표 출원, 최종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기업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기술이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8개 사를 선발해 기술이전 협약 체결, 사업화 컨설팅, 후속지원 등을 제공하며 기술이전이 마무리되면 기업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구는 각 사업이 종료되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5·18 인권 현장투어’ 실시
서구, ‘MZ 공무원’ 90여명 대상
5·18역사공원·전일빌딩 등 견학

광주 서구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MZ세대 공직자들의 역사 인식과 세대 공감을 위한 인권 교육에 나선다.

서구는 ‘기억과 공감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17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초임 공무원 90여명 대상 ‘5·18 인권 현장투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직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세대 간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구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5·18 역사공원’, ‘5·18 자유공원’, ‘전일빌딩245’ 등 5·18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5·18 자유공원에서는 당시 상황을 재현한 상황극을 관람하고, 연대와 나눔의 상징인 ‘광주주먹밥’을 만들며 시민들의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전일빌딩245에서는 헬기 사격으로 남은 탄흔과 사료를 관람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만든 역사”라며 “MZ세대 공직자들에게 기억과 공감의 시간이 돼,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직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